



허리에 띠를 매고 (루 카 12, 35.37)

오늘의 말씀

오늘 복음을 읽다보면 “띠를 맨다”는 부분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준비된 모습으로, 또 한번은 주인이 종을 위해 “띠를 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고보면 <띠>라는 것이 주인과 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임이 분명합니다. 허리에 띠를 맨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절제된 모습, 준비된 모습, 긴장된 상태, 절연한 의기, 종말론적 기다림, 순종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띠>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경외)을 읽어 보고 싶습니다. 시편 84 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기쁨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주님의 앞뜰을 그리워하며/이 몸은 여위어 갑니다./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제 마음과 제 몸이 환성을 지릅니다.”

주님의 거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주님의 앞뜰을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의 거처에서 늘 머물고 싶은 그리움으로 몸이 여위고, 몸과 마음이 하느님에게로 환성을 올리는 시편저자의 노래는 오늘 복음에서 <띠>를 매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누군가 그래야 된다고 시켜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이 읽혀집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미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주님의 집에 있고 싶어하는 신앙인의 삶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띠>를 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등불>을 밝히고 사랑하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띠>는 우리가 좋아하는 <띠>가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과 하나가 된 <띠>가 아닐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띠>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깨어있는 종을 위해 당신 손수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루카 12, 37)이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눈을 뜨는 행위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새로운 눈뜸으로 자기의 심장마저도 하느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절연한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몸을 쓰고자할 때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어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등불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띠>를 준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요한 요한 세레자 신부 | 교구 사회사목국장

† 공지사항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8 월 15 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가톨릭신자가 주일미사와 함께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도록 정한 축일입니다. 낮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까운 인근 성당에서 미사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성모 승천 대축일 한국어 미사를 준비했습니다.
• 장소: St.Thomas Aquinas Catholic Church (602 Everglade Dr, Madison, WI 53717)
• 시간: 저녁 8 시
- 8 월 정기 사목회의가 17 일 미사 후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회계 보고>

KCCM Finance (2013.3 - Present)

황성필 세례자 요한													
2013													
	3	4	5	6	7	8	9	10	11	12	1	2	Total
Incom e	3504	2653	2951	3790	2122								15020
Expense	4270	2662	1987	3500	3050								15469
Resu lt	(766)	(9)	964	290	(928)								-449

3월 지출 내역: St. Paul 및 Multiculture center에 기부(\$2,500)

4월 지출 내역: 성경책 10권 구매 (\$500)

6월 지출 내역: 2013 KCCM 봄 야외회 준비 비용(\$727) / 아버지의 날 행사 준비 비용(\$418.87)

7월 지출 내역: 주교님 방문 준비 비용 (\$653) / 신부님 자동차 보험료 및 수리비용 (\$350)

	3	4	5	6	7	8	9	10	11	12	1	2	Total
봉헌금	1225	850	826	825	732								4458
교무금	930	1385	1140	1360	470								5285

KCCM Current Finance Status

성당계좌		성모회계좌		CD	CD	총자산	순자산
checking	saving	checking	saving				
6963	5366	500	3011	7011	5996	28847	28847
최종 수정일:	2013-08-02						

